



“삼위일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은 하느님께서 성부·성자·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시지만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 기억과 믿음이 우리 신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 있을까요?

삼위일체는 하느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언젠가 명료하게 알게 될 이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려는 이유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분명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은

내가 왜 이 세상에 나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는지

하느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과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인지 알려주는

등불이자 안내자이고 동행자인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과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삶은 불화와 반목으로 가는 악의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길을 안내하는 이를 ‘예의 바른 악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준 높은 악마는 친절하고 합리적이며 감미롭지만 결국 나를 파멸의 끝으로 안내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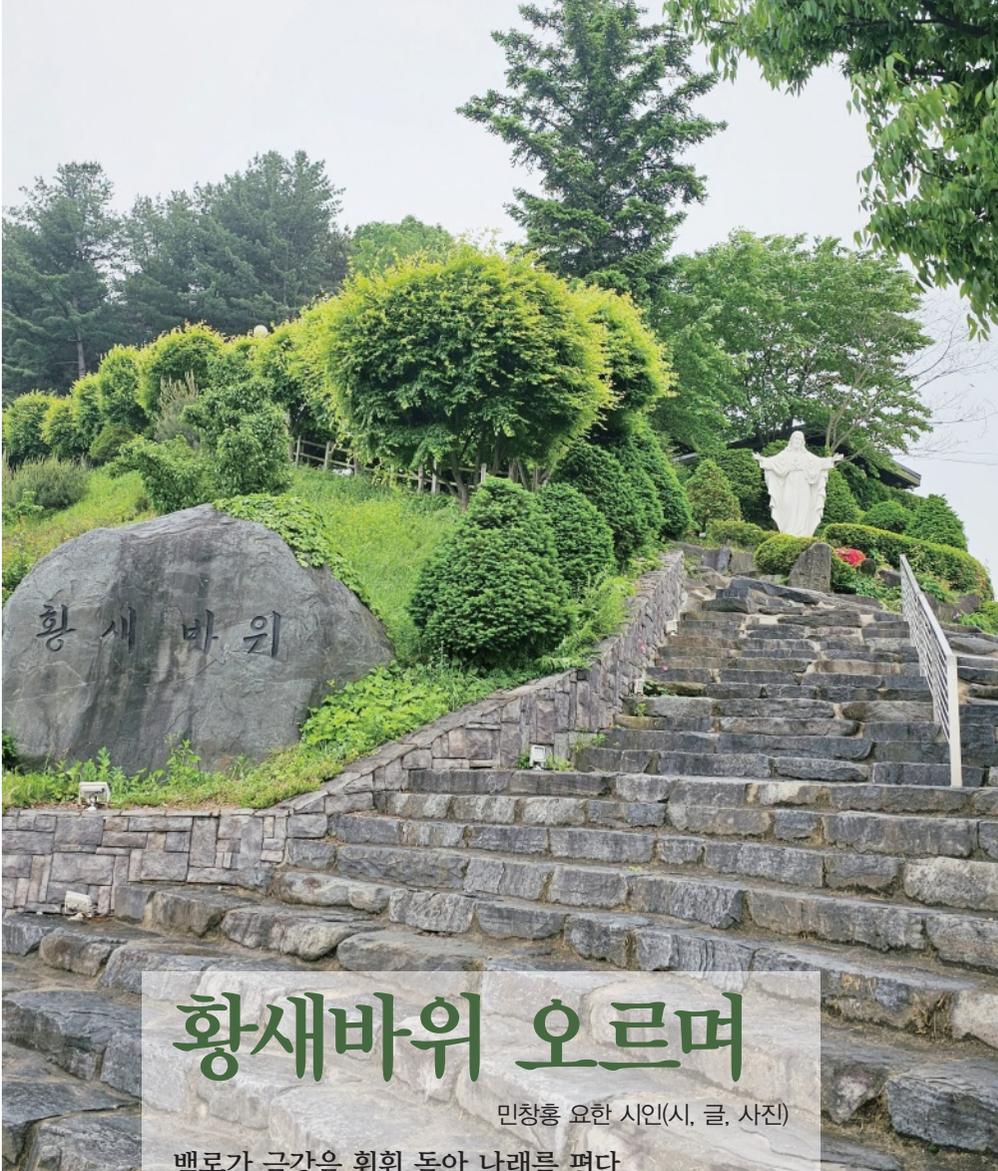
이런 악에 당당히 대면하고 맞서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삼위일체 신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면 삼위일체 하느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당신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주형 예로니모 신부 |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장



황새바위 오르며

민창홍 요한 시인(시, 글, 사진)

백로가 금강을 휘휘 돌아 나래를 편다
푸른 하늘에 새하얀 무희의 춤판
관객처럼 고도古都를 내려다보고

황새바위에 이름 없이 피운
천상의 하얀 꽃들
그 오래전의 행렬

오라줄에 묶인 손 기도손 되고
칼끝에 찢리며 끌려가는 십자가

돌계단 하나하나에
피로 눈물로
여기 제가 있음을 찍었을 뿐인데

안식은 먼 곳에 있어도
가는 길 멀지 않은
여기

그 출발점에 섰을 뿐인데

항쇄의 사슬
피
뚝
뚝
흐르는 계단

오르고 또 오르면
한없이 편안한 숲길
고통의 신비여 영광이여

금강은 묵도하듯 묵도하듯
흐르는데

황새바위 순교성지는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에 있다. 조선시대에 충청도의 감영이 있던 공주는 압송된 천주교 신자 수백 명(사료를 통한 공식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순교자만 337위)이 순교를 당한 곳이다. 공개 처형지였던 이곳 황새바위는 황새가 서식했던 곳이기에 황새바위라고도 하고, 이곳에 있던 바위가 사학 죄수들의 목에 채워진 항쇄 때문에 항쇄바위라 불리던 곳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황새바위 순교성지 기념관에는 손자선 토마스 성인과 이존창 루도비코 순교자, 복자 이국승 바오로, 김현중 스테파노, 이도기 바오로 등 충청남도 순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계단을 따라 오르는 황새바위 성지는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의 길, 빛의 길이 있고 순교탑과 무덤경당, 부활성당이 있으며 성모광장과 순교자광장이 조성되어 있다. 황새바위 순교성지는 충청남도 문화재 제178호로 지정되어 있다.



순교탑



무덤경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만남의 자리: 성경(2)

변종원 요셉 신부 / 광주가톨릭대학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양성하셨듯이, 신학교에서는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를 통해 신학생들이 성경을 학문적 영역에서만 탐구하여 그 안에서 자구적 의미만을 찾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그 삶 한가운데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을 모시고 살수 있게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학과 신앙의 교과서이자 안내서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 백성의 책’인 성경을 읽을 때 혹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고,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만나는 성경이 품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단순히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일로만 생각한다면, 이는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은 후에는 이해를 위해서 묵상(Meditatio), 즉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어떤 빛을 비추는지를 살펴보는 것’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묵상 시간은 성경 속 하느님 말씀이 당시 시대와 문화를 넘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의 나에게 다가와 내 삶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뜻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신앙을 일으키고 하느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하느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슬기, 통달, 용기, 효경 그리고 경외심의 삶(이사 11,2-3)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토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의 삶을 이해할 때,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내 삶 안에서 존재하시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답하며, 그분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여정旅程은 성경에 담긴 하느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지금의 언어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 속 이야기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에게서 치유와 자유 그리고 해방을 얻은 병자들의 이야기, 창녀와 세리들의 이야기, 심지어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이 단순히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인생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느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소이자, 신학하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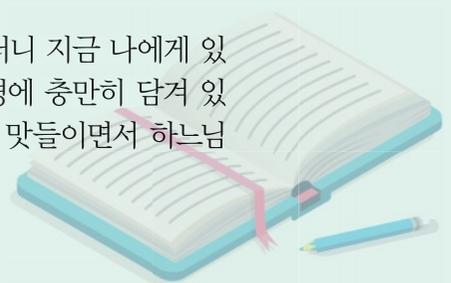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이사야서 주해』 서문; CCL 73,1ff.)

성경은 믿음에 의해 쓰여졌으며, 동시에 그 믿음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고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믿음을 얻기 위한 구원의 선포를 담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듣거나 읽은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당연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깨달음이나 지혜에서 온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순명과 겸손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신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신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것에 익숙해지면, 하느님에 대한 이해도 ‘그리스도교 신앙’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곧, 하느님을 그저 내 현세의 삶을 축복하시고, 내세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만 여기는 기복신앙祈福信仰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있는 성경을 집어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모든 진리가 성경에 충만히 담겨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자주 읽고 또 묵상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과 친숙해지고, 말씀에 맞들이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05)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16

함안지역 교우촌(3)

1890년대 후반이 되자 함안지역엔 새로운 공소가 보인다. 가등佳嶴, 말산末山, 죽청竹淸, 동박洞白公소다. 특히 가등공소는 교우 수가 60명을 상회하는 큰 공소로 등장한다. 반면 논실공소는 신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다가 1900년부터는 교세 통계표에서 사라진다.

논실 교우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공소는 지금의 가야읍 산서리山西里에 있었다. 원래 이 지역은 대산면에 속했고 가야읍에 편입된 것은 공소가 사라지기 30년 전 일이다. 1973년 7월 대통령령에 의해 산서리는 가야면에 속했고 1979년 가야면은 읍으로 승격되었다.

논실에서 북쪽으로 고개 셋을 넘으면 대산면 평림리平林里가 나온다. 앞뜰에 숲이 많이 있었기에 평림이란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이 지역에 가등공소가 있었다. 논실 교우들은 서서히 숲이 많은 평림리 가등공소로 옮겨갔던 것이다. 원인은 두 가지였다. 가야읍이 있는 함안 방면의 발전과 가등공소의 확장이었다.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해 유리한 입장이 된다.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려 대거 조선에 입국했고 여러 이권利權에 개입했다. 일본인들은 부산을 통해 입국했기에 경남지역엔 그들의 영향력이 강했다.

더구나 경부선과 마산선 철도 개설을 위해 풍부한 물자와 사람들이 모여들자 경남지역 변화는 빨랐다. 이렇게 되자 마산 함안 쪽으로도 일본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곧바로 상권을 형성했다. 한때 이 지역엔 일본 상인들과 농장주들이 수백 명 살았고 그들의 보호를 위해 파출소를 만들기도 했다.

마산과 함안의 도시화는 인근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논실공소가 사라진 것은 이 변화의 영향이다. 많은 사람이 떠나자 남은 교우들은 서서히 가등 쪽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1900년 이후부터 가등공소는 함안지역을 대표하는 교우촌이 되었고 훗날 대산본당의 모체가 된다.

물론 가등공소에도 사람들은 빠져나갔다. 그러나 인근 공소의 나이 든 교우들은 오히려 가등 쪽으로 모였다. 왜 그랬을까? 이곳엔 피난 교우들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가등공소 근처에는 신자들의 공동묘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마도 가등공소 내에는 피난 교우들과 함께 입교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나름대로 논밭을 지니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 중 누군가 선종하자 당연히 가까운 야산에 모셨고 이렇게 해서 교우들의 무덤이 하나 둘 생겨났을 것이다.

교우들의 공동묘지는 노년의 피난 교우들에게 마지막 안식처였다. 이러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논실공소는 물론 인근의 쇠락하는 공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남아 있던 나이 든 교우들이 서서히 가등공소로 옮겨왔던 것이다.

의령지역에서 사라진 덕천德川公소와 성당城堂公소 교우들도 함안지역 공소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성당公소가 있는 의령군 지정면芝正面은 남강을 경계로 대산면과 마주하고 있다. 강을 건너면 바로 동박公소가 있다. 가등公소와 함께 동박公소 역시 1900년 이후 교우들은 늘어났다. 의령 쪽 교우들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1900년대 가등公소는 밀양의 명례公소와 진주의 소촌公소(현 문산본당)와도 가까웠다. 교우들끼리 혼인하도록 배려했던 것 같다. 황강을 거쳐 낙동강과 남강을 따라왔던 피난 교우 후손들이 함께 살았던 곳이 가등公소다. 순교복자 구한선(타대오)의 첫 무덤 역시 가등公소 인근에 있었다.

그럴듯한 말

윤선희 드보라 시인/ 가톨릭문인회

아이들이 어릴 때였다. 추석에 친정 갔다가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바닷가를 걸었다.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띄엄띄엄 걷고 있었다. 그러다 앞쪽이 수선스러워졌다. 거북이가 파도에 밀리며 백사장 가까이서 파닥대고 있었다. 책 크기만 했다. 남자들 두서너트가 거북을 따라가며 잡으려고 파도를 피하면서 손을 뻗어대었다. 나는 가까이서 거북을 본 게 처음이어서 놀라서 보고 있었는데 근처로 거북이 밀려왔다. 무슨 용기였는지 거북 등 꺾테기를 양손으로 붙잡아 올렸다.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고 나도 소리를 질러댔다. 그때 옆에서 “놔줘라, 놔줘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까지 거북을 잡으려고 허둥대던 사람들이 하는 소리였다.

거북은 놔줬다. 달리 뭘 하겠는가. 아이들과 잠시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나서 남편이 바다를 향해 멀리 던졌다. 내가 거북을 잡지 못했으면 나도 그들처럼 외쳤을까. 아마 누군가 들고 있는 거북을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었을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등 꺾테기를 한번 만져보라고 부추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곤 킬킬거리며 다시 바닷가를 걷지 않았을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들을 때면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이 좋다는 건지 생각하게 된다. 이 말에는 갈등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갈등을 다수의 사람에게 좋게 보이도록 해결하라는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소수가 가진 갈등은 덮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볼 생각이 없는 말이다. 명품 백에 명품 옷만 사치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치레도 자신을 꾸미는 사치다. 자신이 너그러운 척하느라 정작 억울할 수 있는 당사자는 소소한 걸 따지는 줌스러운 사람이 되고 만다.

전날 아버지를 여윈 성당 교우 문상을 갔을 때다. 함께 간 자매가 울고 있는 자매에게 울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우는 건 돌아가신 분께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면 신앙적인 말을 늘어놓았다. 말을 들은 자매는 알고 있다며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얼른 그만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자매의 옆구리를 찔렀다. 막 아버지를 잃은 사람에게 무슨 신앙의 대 스승이어서 바보 같은 말을 주절거리는가 싶었다. 묵묵히 그녀의 슬픔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말고 무얼 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러는 그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지도 않았는가. 어불성설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잊은 채 신앙으로 포장한 알팍한 말을 쏟아내며 하는 자기과시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나로선 전적으로 따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게 가능한가. 내 손가락에 박힌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가시가 다른 사람의 어떤 큰 상처보다도 신경 쓰이고 아프게 느껴지는 게 인간 아닌가. 그럼에도 노력해야 한다. 그럴듯한 말은 안으로 꼭 삼키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거기서부터 사랑과 이해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할 선종 사제
이웅석(프란치스코) 신부
2010년 6월 8일

故 이웅석 프란치스코 신부 13주기 추모미사

일시: 6월 8일(목) 11:00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의: 남경철 신부 010·9514·0825

교구/본당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여름방학

일시: 6월 10일(토)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시: 6월 11일(주일) 10:30
장소: 봉곡동성당

예비신학생·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6월 11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마산장애인복지관 개관 20주년 기념식

일시: 6월 8일(목) 11:00~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운영지원팀 055·247·5194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 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전인적인 치유세미나

일시: 5월 26일(금)~8월 25일(금) 매주 금요일
장소: 청주교구 초청성명회관
내용: 영적치유, 내적치유, 육적치유, 해방기도
강사: 오웅진 신부, 신상현 수사, 한연홍 신부, 박재천 신부, 맹진학 신부, 김명심 신부, 윤민재 베드로 신부 외 전국유명강사
문의: 043·213·9103, 010·8466·8238

제18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접수: 6월 5일(월)~7월 14일(금)까지
대상: 찬미반오소서 7년 여정에 부합한 활동에 기여해 온 개인 혹은 단체.
문의: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02·460·7622/ cbckcee@cbck.kr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일시: 1박 2일- 6월 10일(토)~11일(주일)
8월 2일(수)~3일(목)
3박 4일- 7월 13일(목)~16일(주일)
7월 20일(목)~23일(주일)
8박 9일- 6월 15일(목)~23일(금)
6월 29일(목)~7월 7일(금)
40일- 10월 4일(수)~11월 12일(주일)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6월 11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2023년 어머니·아버지학교 줌 온라인교육

일시: 6월 23일(금)~7월 14일(금) 매주 금 19:30~21:30(4주)
장소: 접수한 분에 한하여 줌링크 발송
주제: 자녀 신앙이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주관: 한국평단협/ 햇살사목센터
문의: 02·774·0840 햇살사목센터

예수회센터 여름특강 동영상 강좌 7월 개강

내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적 호소- 문점숙, 조경자 수녀
·우리가 모르는 교회론적 질문들-김민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예언서-주원준 박사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윤리와 영성-박상훈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최지원 수녀
·이미지를 이용한 기도 방법-배영길 신부
기간: 각 6주 과정/ E-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발송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쉽고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일시: 7월 1일~4일/ 7월 7일~9일/ 7월 22일~24일/ 7월 28일~30일/ 8월 1일~3일/ 8월 5일~8일/ 8월 11일~14일/ 8월 27일~29일/ 9월 1일~3일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6월 5일(월) 19:00	중앙동성당	영적식별과 기도	김영훈 미카엘 신부(부산교구)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원하는날(미리연락)	부산 부곡동 본원	010·9353·1773(김 토마스 수녀) 010·6608·3217	인스타그램에 한국외방선교수녀회를 검색하세요. -

<p>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제주도(추지도) 성지순례 모집 6.19(월)~21(수)/ 6.26(월)~29(목)/ 7.3(월)~5(수)/ 7.10(월)~13(목)/ 7.19(수)~21(금) ■한국 성지 167순례 모집 6.15(목)~18(주일) 대전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7.27(목)~30(주일) 원주·춘천교구 4일(부산·대구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p>	<p>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p> 	<p>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례자 요한) 010.5053.5393</p>	<p>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일본 나가사키 4박 5일 7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p>
<p>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달기잼, 무화과잼, 굴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p>	<p>꽃요셉과 분재를! 40년 분재 경력. 분재/분경/가드닝 개인, 그룹, 기업체, 관공서 레슨 및 출강 상담 꽃요셉 010)7221-0874 NAVER 검색 '서경분재원' 인스타그램@bonsai.artist</p> 		<p>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아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p>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문의: 제주자연피정(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7월 21일~23일/ 7월 29일~31일/ 8월 1일~3일/
성지순례: 6월 17일~20일/ 9월 10일~13일/ 10월 7일~10일
문의: 02-773-1463, 064-756-6009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0: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2층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문의: 010-3551-2038

가톨릭 농민회 직원 모집

교구 가톨릭 농민회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물류 관리 및 배송 1명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쇼핑몰 관리 1명
접수: 6월 9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 혹은 E-메일)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각 1통
주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
291-28(우 52034)
E-메일: kcfm055@hanmail.net
문의: 가톨릭 농민회 055-582-7010
▶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25정전, 70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성심성월

6월은 평화의 달




1 평화아카데미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저녁 7시
장소: 가톨릭문화원(구. 교구청)
강사: 이시우(사진가, 평화운동가)
주제: 정전협정과 9·19 군사합의 그리고 작은 연방

2 평화를 위한 9일 기도
일시: 2023년 6월 17일(토)~25일(일)
매일 저녁 9시 주모경

3 한반도 평화기원미사
일시: 2023년 6월 25일(일) 10시 30분
장소: 사천성당
집전: 교구장 서리 신은근(바오로)신부

천주교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55)249.7168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결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이

배상정 아말리아(복신동본당)

2015년 어느 날 본당 수녀님께서 같이 구치소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수녀님께서 교리를 가르치는 동안 옆방에서 감정코칭 수업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으셨다. 그 초대 받고 결정하기까지 며칠이 걸린 것 같다. 그렇게 수요일은 구치소 가는 날이 되었다.

나는 행복일기를, 수녀님은 맛있는 간식을 들고 같이 구치소를 가게 되었다. 하루는 따뜻한 고로케를, 또 다른 날은 맛있는 떡이나 빵을 나눠 먹었다. 정성이 담긴 간식은 이미 잘 차려진 밥상이었고 수용자들에게도 수녀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작은방에 25명 남짓 뻥뻥이 앉아서 한 주를 어떻게 지냈는지, 힘든 감정을 만났을 때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누었다. 선물로 가져간 행복일기로 매일매일 다행한 것, 감사한 일, 선행일기, 감정일기 등을 기록하여 다음 주에 가져오고 100일을 다 쓴 사람은 또 새 행복일기를 받아 갔다.

화난 목소리로 툭툭 자신의 마음을 내뱉었던 한 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옆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히 대해주던 한 분에게서 받은 감동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

시간이 지나 신부님께서 매주 미사를 집전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구치소의 종교집회는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신자는 사실 몇 명 되지 않았지만 많은 수용자들이 미사에 참여했다.

신부님의 정성이 가득한 미사와 따뜻한 돌봄으로 청년 두 명이 통신교리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미사를 드리러 가면 한 청년이 다가와 자신이 교리 시험에서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자랑하였다. 우리는 기쁘게 박수를 치고 같이 좋아했다. 그 청년이 처음 미사 독서를 했을 때가 생각한다. 글 읽기가 낯설었는지 아니면 너무 떨려서였을까. 독서를 잘 읽지 못하고 떠듬거렸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독서를 읽어보고 매번 자신의 손으로 노트에 써오기 시작했다. 당연히 독서를 잘 읽게 되었고 잘 읽고 난 후, 강당 뒤에 있는 나를 자랑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러면 엄지를 치켜들고 활짝 웃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미사 시간에 해설을 맡아 성실히 봉사를 했던 또 한 청년이 떠오른다. 그는 출소를 앞둔 마지막 미사에서 영성체 후 성가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그 악보를 구하기 위해 그 청년은 근처 성당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냈고 본당 신부님은 정말 멋진 필체로 정성스럽게 쓴 답장과 악보를 보내왔다. 그 사실을 옆 수용자가 더 들떠서 나에게 전해주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의 정성이 여러 사람을 기쁨으로 빛나게 했다. 그 청년이 그 성가를 부를 때 그도 나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마도 그 청년은 자신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것이다.

처음 구치소를 갔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 천주교 종교집회는 거의 어벤져스급이다. 큰 목소리와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신부님들과 안 보이는 손이지만 모든 것을 조율하시는 수녀님,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미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는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는 친절과 따뜻한 위로, 지지가 아닐까. 매주 수요일, 우리는 하느님의 귀한 자녀들을 만나러 구치소로 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만난다.

어느 날 수녀님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진실한 태도와 따뜻한 친절을 통해 그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드린다.

■ 교정사목 후원계좌 안내

○마산·창원·거제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3-35604, 농협 849-01-309873, 경남 593-07-0021495

○진주지구 교정사목후원

▶계좌: 하나 160-890025-22604, 농협 301-0041-1371-31, 우체국 613448-01-001528

●예금주: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정사목 사무실 055-249-7043

